

보도 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 일시	2021. 4. 28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영종청라개발과
담 당	과장 윤문상, 제3연륙교팀장 박춘곤, 담당 오영림(032-453-7621~4)

“발주기관 직접 나서 입찰 참가기업·지역업체 만남의 장 행사 개최”

제3연륙교 기술제안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확대·건설산업 활성화에 온 힘
IFEZ·현대건설·포스코건설·한화건설·디엘건설·극동건설 상생협약서도 체결

-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공사 발주기관이 직접 나서 기술제안 설계 단계부터 입찰 참가 기업과 지역 업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 등을 개최, 관심을 모았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와 청라국제도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등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체결과 ‘입찰 참가자와 지역업체 만남의 장’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.
- 이날 행사는 입찰 참가기업들에게는 지역업체 면담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지역업체들에게는 공사실적 등 업체가 가진 장점을 적극 알릴 기회를 제공, 제3연륙교 건설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실제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률만 제시하고 하도급업체 선정은 낙찰자 선정 후 시공단계에서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- 이로인해 지역업체는 신기술·특허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적 부족 등의 이유로 입찰참여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도급률도 낮아진다.
- 인천경제청은 이번 행사가 입찰 단계부터 입찰참가자인 대형건설사가 실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기술·특허공법 등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업체는 기술제안 설계에 반영하고 또 시공성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향후 입찰기회를 제공,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 열린 이날 만남의 장 행사에는 제3연륙교 1·2공구 입찰 참가자인 현대건설(주), (주)포스코건설, (주)한화건설, 디엘건설(주)(구 대림건설), 극동건설(주) 등 5개 대형 건설사와 인천지역 60여개 전문건설, 자재, 신기술·특허보유 업체가 참여, 각 대형 건설사의 부스에서 업체 홍보와 하도급 참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.
- 이와함께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상생협약서 체결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 5개 입찰 참여자 대표,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등이 참여,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.
- 이원재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이번 상생협약서 체결과 입찰 참여자와 인천지역건설업체 간 만남의 장 개최는 인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앞으로 이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, 인천 지역업체들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길이 4.67km, 폭 29m의 왕복 6차로와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 건설된다. 오는 2025년 개통이라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목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적용돼 추진 중에 있다.

- 3개 공구로 나눠 진행 중인 제3연륙교는 물량장과 해상준설 등 우선 시공
분인 3공구가 지난해 말 착공됐으며 1,2공구는 오는 7월 중 기술제안서 평
가를 실시, 낙찰자를 선정 후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.